

2025년 4/4분기 대구성서산업단지(인쇄출판) 입주업체 경기 동향

◆ 대구성서산업단지(인쇄출판) '25년 4/4분기 경기현황 ◆

구 분	'25년 3/4분기	'25년 4/4분기	증감내용
가 동 률	71.41%	72.14%	0.73% 증가
총생산액	4조 8,215억원	4조 8,445억원	230억원 증가
입주업체	3,663개	3,686개	23개 증가
근로자수	49,658명	49,341명	317명 감소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Management Corporation for Daegu Seongseo Industrial Complex

2025년 4/4분기 경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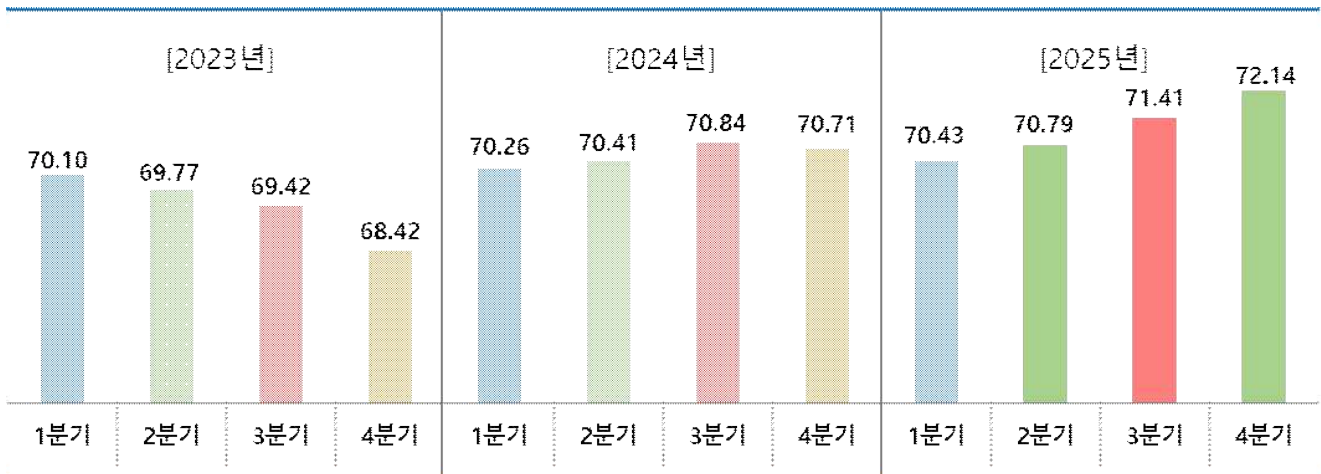
입주업체 공장 가동률 및 경기동향

● 2025년 4/4분기 입주업체 평균 가동률 72.14%

- 전분기(71.41%) 대비 **0.73% 증가**
- 전년도 동분기(70.71%) 대비 **1.43% 증가**

[분기별 가동률 추이]

(단위 : %)



(단위 :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	70.10	70.26	70.43
2분기	69.77	70.41	70.79
3분기	69.42	70.84	71.41
4분기	68.42	70.71	7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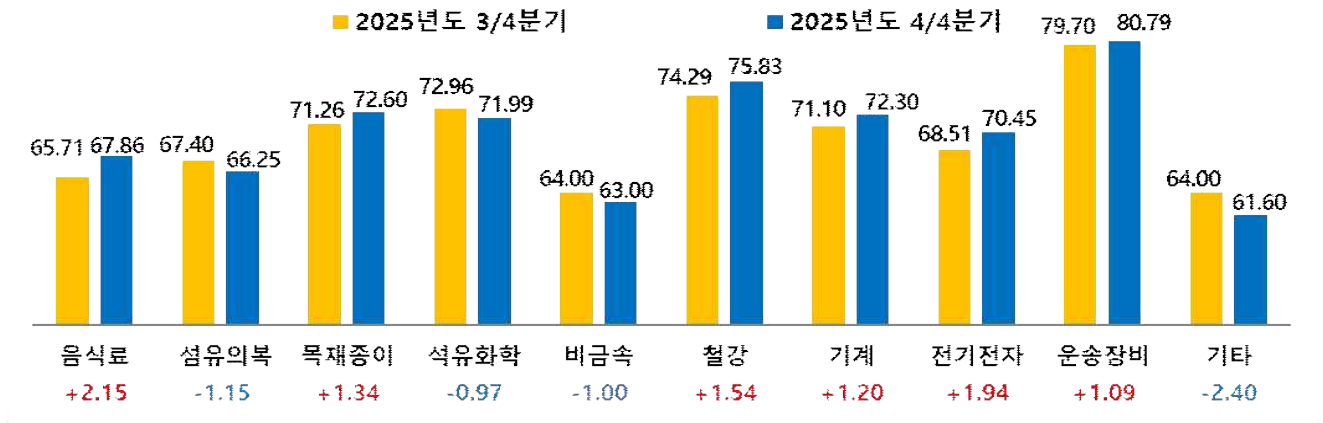
※ 95% 신뢰도 수준에서 ±2.38%p 표본오차

- 2025년 4/4분기 가동률은 전분기 대비 0.73% 증가, 전년 동분기 대비 1.43% 증가한 72.14%로 나타난다.
- 환율 여건이 바뀌면서 수출 경쟁력 상승으로 인한 수출 물량의 증가와 미국과의 자동차 부품 관세협상으로 가동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내수 소비 부진과 인력·원자재 비용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면서,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체감되는 경기 회복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 전분기 대비 업종별 가동률

[전분기 대비 업종별 가동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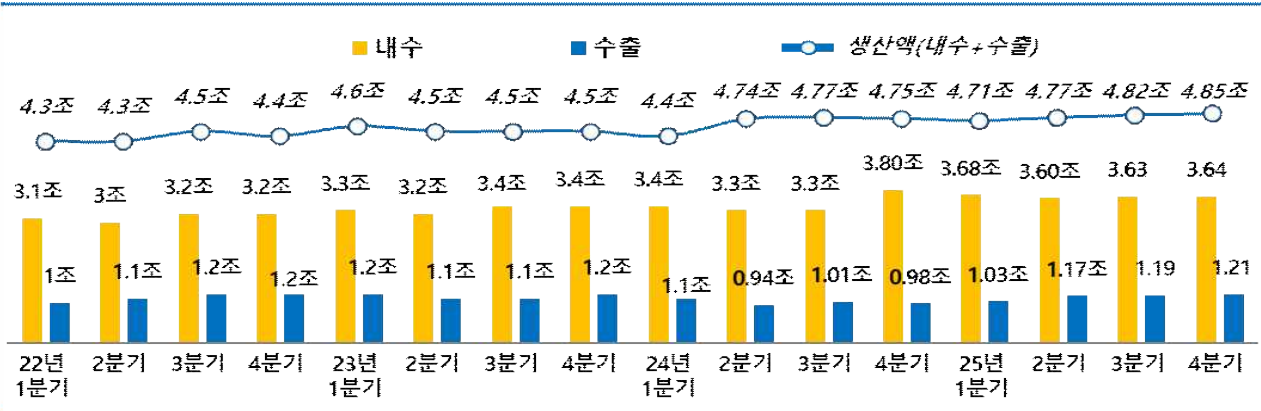
- 2025년 4분기 업종별 가동률은 전체적으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업종별로 엇갈린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음식료를 비롯해 전기전자, 철강, 목재종이 등 일부 업종은 가동률이 올라 비교적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 특히 운송장비는 관세 협상의 결과로 가동률에 탄력을 받았다. 반면 인력 부족과 인건비·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계속되고, 청년층 인력 감소와 투자 제약으로 기업의 AI·자동화 대응이 미흡한 업종은 가동률 회복에 제한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2025년 4분기에도 운송장비 업종이 80.79%로 가장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이어 철강 75.83%, 목재종이 72.60%, 기계 72.30%, 석유화학 71.99%, 전기전자 70.45%, 음식료 67.86%, 섬유의복 66.25%, 비금속 63.00%, 기타 61.60% 순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는 음식료(+2.15%), 전기전자(+1.94%), 철강(+1.54%), 목재종이(+1.34%), 기계(+1.20%), 운송장비(+1.09%) 순으로 전분기 대비 상승한 반면, 기타(-2.40%), 섬유의복(-1.15%), 비금속(-1.00%), 석유화학(-0.97%)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전분기 대비 업종별 가동률		
상 승 업 종	음 식 료 67.86% (+2.15%)	전 기 전 자 70.45% (+1.94%)
	철 강 75.83% (+1.54%)	목 재 종 이 72.60% (+1.34%)
	기 계 72.30% (+1.20%)	운 송 장 비 80.79% (+1.09%)
하 락 업 종	기 타 61.60% (-2.40%)	섬 유 의 복 66.25% (-1.15%)
	비 금 속 63.00% (-1.00%)	석 유 화 학 71.99% (-0.97%)

2025년 4/4분기 생산실적

[분기별 생산실적]

(단위 : 조)



- 2025년 4분기 총 생산실적은 4조 8,44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230억원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 개선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 내수는 고금리 상황의 지속과 기업부채 부담,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반면 수출은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수요 회복과 환율 여건의 영향으로 비교적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전체 생산실적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전분기 대비 생산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3/4 분기	2025년 4/4 분기	증 감	비 고
생산액	4,821,538	4,844,510	+22,972	(+0.48%)
내수	3,628,489	3,639,188	+10,699	(+0.30%)
수출	1,193,049	1,207,122	+14,073	(+1.18%)

2025년 4/4분기 입주업체 및 근로자 현황

- 4분기 입주업체 수는 전분기 대비 **23개사** 증가한 3,686개사로 집계됨.
- 전체 근로자 수는 전분기 대비 **317명** 감소한 49,341명으로 집계됨.

※ 기업의 관외유출로 인한 근로자 감소 (EV첨단소재 등 3개 업체)

구분	입주업체 수(개)			구분	근로자 수(명)		
	2025. 2/4	2025. 3/4	증감		2025. 2/4	2025. 3/4	증감
계	3,663	3,686	+23	계	49,658	49,341	-317

2025년 4/4분기 경기상황 설문조사 결과

< 전분기 대비 경기상황 >

구분	어려웠다	비슷했다	좋아졌다
25. 4/4분기	51.77%	42.70%	5.53%
25. 3/4분기	53.35%	41.99%	4.67%

- 2025년도 4분기 경기상황은 전분기보다 ‘어려웠다’ 라는 응답이 51.77%로 전분기 대비 1.58% 감소, 전분기보다 ‘좋아졌다’ 라고 응답한 기업은 5.53%로 전분기 대비 0.86% 증가함

2025년 4/4분기 기업경영 애로사항

< 기업경영 애로사항 >

구분	수주물량 감소	인건비 증가	운영자금 (대출금리)	원자재 조달	인력 부족	시설 노후	근로시간 단축	기타 (무응답)	R&D 투자/ 기술부족	기술 부족
25. 4/4분기	30.07%	21.92%	14.43%	10.59%	9.05%	5.38%	5.30%	1.47%	1.06%	0.76%
25. 3/4분기	28.19%	23.19%	12.17%	12.64%	8.79%	5.48%	6.15%	1.35%	1.01%	1.01%

※ 순위별 가중치(3순위까지) = [(1순위 × 3) + (2순위 × 2) + (3순위 × 1)] ÷ 6(이하동일)

2026년 1/4분기 경기전망 설문조사 결과

< 2026. 1/4분기 경기전망 >

구분	어려울 것 같다	비슷할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
26. 1/4분기	52.88%	42.70%	4.42%
25. 4/4분기	47.06%	48.48%	4.46%

- 2026년 1분기 경기상황 조사 결과, ‘어려울 것 같다’ 는 응답이 52.88%로 전분기 대비 5.82% 증가하였으나 ‘좋아질 것 같다’ 는 4.42%로 전분기 대비 0.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4/4분기 경기동향 및 결론

- 2025년 4분기 입주업체 경기는 환율 변동 등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여건 개선으로 생산실적과 가동률이 전분기 대비 일부 상승하였으나, 내수 회복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전반적인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AI·자동화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기업 전반에서는 자금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공정 개선과 에너지 전환 부담 또한 기업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다만 이차전지, 스마트공장, 산업용 로봇 등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평가되나, 내수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적 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 종합적으로 인력 부족과 인건비·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등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기적인 경기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경기 회복 속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